



《생각의 탄생》
 윌리엄 켈빈 | 윤소영 옮김 | 사이언스북스 | 350쪽 | 값 13,000원
 《생각의 탄생》
 로버트 루트번스타인, 미셸 루트번스타인 지음 | 박종성 옮김 |
 예코의서재 | 455쪽 | 값 25,000원

《생각의 탄생》 생각은 머리로 하는 것인가,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인가

글_정윤희 기자

먼저 질문 한 가지. “팬더곰, 원숭이, 바나나 세 가지 사물 중 서로 가장 관련되어 있는 두 개를 고르시오.”

팬더곰과 원숭이?, 원숭이와 바나나?, 아니면 팬더곰과 바나나? 리처드 니스벳의 《생각의 지도》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동양인은 원숭이와 바나나를, 서양인은 팬더곰과 원숭이를 선택했다고 한다. ‘팬더곰과 원숭이를 선택했던 그렇다면 나는 서양인이란 말인가?’라며 코웃음을 쳤던 기억이 난다. 어쨌든 팬더곰과 원숭이를 선택한 서양인은 동물이라는 ‘범주’를 기준으로, 동양인은 원숭이는 바나나를 먹는다는 ‘관계’에 근거한다. 즉 동양은 세상을 ‘관계’로 파악하고, 서양은 범주로 묶일 수 있는 ‘사물’로 파악한다는 것이다. 《생각의 지도》는 동·서양의 사고방식이 문화에도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해주는 책이었다.

최근 S그룹에서 임직원들의 독서열풍을 일으켰다던 로버트 루트번스타인의 《생각의 탄생》의 표지를 보고 《생각의 지도》가 떠오른 것을 보면, 생각의 결과를 동서양이라는 선으로 가르는데 대한 반감이 내 머릿속 밑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나보다.

로버트 루트번스타인은 《생각의 탄생》 서문에 “이 책은 창조적으로 생각하기에 관한 책”이라며 출발한다. 그래서 창조적인 인재상을 강조하는 기업에서는 당연 필독서일 듯싶다. 창조적으로 생각하기는 곧 기업의 성과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한 분야의 전문가인 ‘I’형 인재를 선호했다면, 이제는 깊고 넓은 지식을 가진 ‘T’형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T형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지식의 통합, 융합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로버트 루트번스타인의 《생각의 탄생》은 컨버전스 시대에서 통합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잘 가르쳐주고 있다.

로버트 루트번스타인의 《생각의 탄생》과 아울러 윌리엄 켈빈의 《생각의 탄생》도 주목해야 한다. 책 제목이 같은 두 책을 보면서 생각, 사고, 사유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로 했다. 국어사전을 펼쳐봤더니 ‘생각’은 ‘머릿속으로 헤아리거나 판단하거나

인식하는 것’, ‘사고(思考)는 ‘어떤 주제에 대하여 이성적으로 깊이 생각하는 것’, ‘사유(思惟)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사고하느냐와 사유하느냐로 구분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생각은 마음으로 하는 것인가, 머리로 하는 것인가.

윌리엄 켈빈의 《생각의 탄생》은 “생각과 지능이 어떻게 기능하는가”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책을 보면 데카르트는 도달한 결론은 뇌를 하나의 기계처럼 보는 관점이 유용하다는 것이라 주장했고, 찰스 다윈에 따르면 생각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한다. 《생각의 탄생》의 저자 윌리엄 켈빈은 찰스 다윈이 제시한 ‘생각은 마음으로부터’에 집중해 육하원칙에 따라 생각이 탄생하는 과정을 분석했다. 윌리엄 켈빈은 생각 그리고 지능이 어떻게 기능하는가를 다루면서, 인류가 지능을 갖게 된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과정도 모두 다윈적 과정 때문이라는 것이다. ‘진화’한다는 것에 기분이 언짢을 수도 있겠지만, 저자는 기분 나쁘지 않게 흥미롭게 전개하면서, 오히려 읽는 이에게 “그렇다면 생각은 무엇인가, 생각하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만든다.

다시 로버트 루트번스타인의 《생각의 탄생》으로 돌아와서, 책 속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인슈타인, 스트라빈스키, 피카소, 마르셀 뒤샹, 버지니아 울프, 리처드 파인먼, 제인 구달 등 천재들의 생각잔치가 풍부하게 펼쳐있다. 이 중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다. 말이나 숫자는 이것의 표현수단에 불과하다. 심상이 먼저 나타나서 내가 그것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게 된 다음에야 말이나 기호가 필요한 것이다. 과학자는 공식으로 사고하지 않는다.” 아인슈타인의 말은 윌리엄 켈빈이 지은 《생각의 탄생》이 들어맞는 예이다.

또 한 가지, 로버트 루트번스타인의 꼽은 천재들, 아인슈타인부터 화가 모리츠 C. 에셔에 이르기까지 창조적인 사람들의 학교 성적은 대체로 변변치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통사람들과 다른 천재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 진실을 열망하고, 알고자 하고, 말하고 싶어 하며, 그것에 헌신하고자 하는 것이다. 결국 창조적 생각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인가. **김민**